

# 다니엘 K. 다코 박사, 루가 복음, 12차, 예수님과의 기적적 만남, 루가복음 8:22-56

© 댄 다코와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예수와의 기적적 만남, 루가 복음 8:22-56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를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누가복음 8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며,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8장 끝까지 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다른 부분은 누가 기적적인 행위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선포와 기적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하시는 일에서 함께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까지 예수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살펴보는 동안 저와 함께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폭풍을 이겨내고 자연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수비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악령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 두 여인을 다루는 기적을 다룹니다. 한 명은 유대인 대제사장 야이로의 딸이고, 다른 한 명은 피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인이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첫 번째 기적적인 만남을 재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는 22절을 읽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떠났고,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

그리고 폭풍이 왔습니다. 그것은 호수에 내려왔고, 그들은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는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나 바람과 거센 파도를 꾸짖으셨고, 그들은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놀랐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까지도 명령하고,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어떤 복음서 필자들은 마치 모든 제자들 과 예수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깨어나서 예수께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경우, 누가의 초상화는 예수가 잠자는 사람이었다. 폭풍 속에서 예수가 잠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와의 기적적인 만남을 살펴보면 이 기록에서 세 가지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상대하는 제자들은 지형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 앞부분에서 , 그들 중 네 명이 실제로 어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수영을 잘해요. 그들은 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전문가로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일은 그 와중에 예수께서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와.

한 무리는 너무 무서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예수님을 볼 때 의미심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처럼 때때로 피곤해서 잠이 드십니다. 아마도 그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신 경우 중 하나일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잠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빠, 가끔은 식사를 하고 나서 안락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올리면 잠이 드는 거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면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항상 같습니다. 피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다면, 잠을 잘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가 잠을 자고 있었고,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다른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권능과 권위입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연에 대한 자신의 권능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 예수가 병을 고칠 때 병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고 말하는 것 외에도 말입니다.

20세기에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았지만 예수가 무언가를 했고 그들의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논리를 제공하려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는 자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기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대로, 그것이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베드로가 전문적인 어부였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수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상황에 대한 통치를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폭풍을 꾸짖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가의 언어입니다.

그는 폭풍이 들을 귀가 있는 것처럼 폭풍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말할 때조차도, 자연, 폭풍, 물이 그의 말을 듣고 복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것은 인자 안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것을 증명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중심적인 문제를 확립합니다.

왜 그들은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주제를 바로 옮기셨습니다. 보세요, 여기서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믿어야 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25절.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였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며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까지도 명령하고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가?

글쎄요,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죠. 그리스어 단어 피스티스 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단한 질문을 하셨을 때, 그는 깊고 깊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액센트와 신뢰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믿지만,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므로, 제 자신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배 안에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볼타 호수에서 자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는 가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호수에서 수영했습니다. 저는 다른 강에서 문자 그대로 1시간 30분, 1마일 3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강인 스코코 강은 우리가 해류에 맞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은 깊고, 거의 매년 누군가가 강에서 죽습니다. 저는 볼타의 칼마 호수나 스코코 강에서 다이빙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아크라에 올 때는 가끔 바다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무서울 것입니다.

나는 두렵겠다. 베드로가 두려웠다면, 나도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예수님은 누군가가 두려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믿음은 여기서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가 말씀하신 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훈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그분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바람이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숫가에서 자란 전문 어부들은 폭풍에서 고요함으로 빠르게 변하는 파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에 경탄할 것입니다. 다음 기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대부분이 인생에서 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에서 폭풍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폭풍은 당신이 예수님과 더 가깝거나 가까이 있는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폭풍은 여전히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사실이 그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잠을 잤다는 사실이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가 옆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그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췄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여기 있다. 우리는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다.

누가는 폭풍을 마주할 때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사역에서 이 특정한 상황을 사용하여 데오필루스와 그 이후 독자들의 주의를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셨던 한 가지 상황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에서 폭풍을 겪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기서 요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기적적인 만남.

첫째, 폭풍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폭풍을 진정시키십니다. 둘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기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께서 악령에 대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을 읽어보세요.

라사 사람들 의 지방으로 배를 탔습니다 . 예수께서 육지로 나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도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곧 귀신들을 보았을 때, 그는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간청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는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그것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감시를 받고 사슬과 족쇄로 묶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박을 끊고 악마에게 사막으로 쫓겨났습니다 .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 네 이름이 무엇 이냐?"고 물으셨고, 그는 "군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무저갱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큰 돼지 떼가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이곳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악마들이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가파른 언덕을 달려 호수로 내려가 익사했다. 여기서 설명할 점이 있다.

루크의 세계관에서 악령은 존재하고 물질 세계에 관여하며, 인간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여합니다. 루크의 세계관에서 악령은 개인을 사로잡고, 사람의 삶을 장악하고, 이상하고 기묘한 증상을 보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신앙 체계는 여러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 체계와 매우,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은 종종 영적인 원인에 기인합니다. 악령이 온갖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선한 영이 좋은 목적을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선한 영혼은 개인에게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악한 영혼은 용기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혼은 자기 파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종류의 세계관을 상상할 때, 비록 당신의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들이 호수를 건너 비유대인 땅의 이방인 영토로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악한 영적 활동에 노출되는 것은 예상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 편에서 악한 영적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회당에서 누군가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방인 영토에 있습니다.

그가 이 남자를 보는 신념 체계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서구 세계에 있다면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남미에 있다면 제가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악마에 사로잡혔거나 사로잡혔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이 온갖 상황을 드러낸 것을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리카에 있다면, 당신은 이런 종류의 상황에 익숙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데려가서 그들이 모든 종류의 사악한 원인으로 에너지와 능력을 얻게 하는 악마에 사로잡혔다는 믿음이 믿어지고 관찰되는 곳입니다.

아시아 국가에 있다면, 당신도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또한 예수님과의 이 기적적인 만남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마음 뒤에 간직하세요.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다니셨다고 말했습니다. 8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와 함께 가져오는 것.

통치와 권능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대의에 반대하는 모든 영적 세력이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권능에 복종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초대하고 전달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권능을 수행하고 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악령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요단 건너편의 수비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그리고 몇 가지를 관찰해 보자. 하나.

이 사건의 맥락은 데카폴리스입니다. 요르단 동쪽에 있는 10개 도시 지역입니다. 이 사람의 곤경은 그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들은 군단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그들에게 “너희 이름은 뭐니?”라고 물었을 때, 그는 군단이라고 말합니다. 군단,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군단은 로마 군대에서 6,000명의 군대 중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많은 악마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악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많은, 많은 어둠의 세력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참아주세요. 이 사악한 영이 개인을 느끼고 사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맥락에서 그 맥락의 상황을 다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몇 가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남자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는 알몸이었어요. 그는 이상했어요.

그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경비 아래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루크는 영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를 사슬로 묶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누가는 우리에게 그의 거주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누가는 그가 무덤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만약 그것이 당신이 사는 곳이나 이 강의를 따라가는 곳 때문에 당신에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면, 무덤은 고대 문화권에서 죽은 자의 장소입니다.

유령이 사는 곳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영적 무대에서 온갖 어둠의 세력이 집을 찾는 곳입니다.

무덤은 때때로 지하 세계의 신들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곳에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폭력적이라는 것은 그가 실제 사람을 예의 바르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영들이 그를 격렬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할 때, 때때로 영이 그를 사막으로 몰아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영들이 거주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강의에서 말했듯이, 루크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한 가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악령은 예수님을 알아보입니다. 저는 21세기에 너무 많은 목사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지쳤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위대한 신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위를 의식해서 너무 거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대하다고 계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권능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서 오는 권위를 알아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오 예라고 말해야 하나요? 네, 저는 항상 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니.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은 종종 그를 알아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가 그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일하는 영을 감지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로. 그리고 당신이 감명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칭찬을 공유하세요.

누군가 말하길, 오 신의 사람이여, 당신은 말하길, 오 예, 나는 항상 내가 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랬어. 그리고 당연히, 예수가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야 .

자격을 주목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이방인 영토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야기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능과 권위를 가진 신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가 가진 권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를 대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 지역의 돼지들에게 거주할 것입니다. 돼지들은 호수로 달려가서 죽을 것입니다.

증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그 현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의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른 정신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 폭력적인 그 사람. 그가 예수를 침착하게 만난 후에 사람들이 와서 그를 볼 것이다. 악마에게 사로잡혀 자기 파괴에 연루된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발견될 것이다.

무덤이나 사막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처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영에 이끌려 군중이 올 때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제자의 자세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지금 그와 함께 갈 수 있는지 요청할 것입니다.

34절 목동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읍과 시골에 전하니 무리가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갔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 사람을 만나니라.

그들은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더 이상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비대 주변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떠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 올라 돌아갔습니다.

38절을 주목하세요: 귀신이 나간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라. 그리고 그는 떠났다. 온 도시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며.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께서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선포합니다. 여기에 간단한 연습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소년입니다.

저는 이교도 활동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악마적 활동, 악마적 소유, 이교도적 물건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자란 곳에서는 미신이 더 증가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 중에는 자연사로 죽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메투셀라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은 많은 악마적 활동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 지역에 기독교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러 온 신자들이 그저 사람들과 기도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폭력적인 표현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간질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나누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예리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나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그런 모임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서는 가톨릭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 가톨릭 카리스마적 갱신이 도입되었을 때, 나는 그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칠수록,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카리스마적 갱신에 있어서 제 그룹에서 완고한 무리가 되었고, 우리는 성모송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리 넘어가자. 나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나는 이교도 신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가 예수에게 목숨을 바쳤을 때 잃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영적 힘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정 사례에서 스케치를 하나 하자면, 예수의 이름이 여전히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에콰도르, 아이티, 가나,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아시아, 인도, 중국 지하교회에서 온 악령 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세계관이 아니라면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우리 중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성적이었던 몇 가지를 당신과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점은 내가 루크가 여기에서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되거나 악마의 권능에 의해 파괴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줍니다. 나는 요한이 "인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네. 여기서 귀신들린 자와 수비대가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는 39절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도시 전체, 도시 전체, 도시 전체에 가서 예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요점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쇼맨십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에 대한 토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을 번창하도록 바꾸셨는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예수님의 폭풍을 진정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군단에 사로잡힌 사람을 풀어주고 치유하는 능력에서도 드러난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6,000명의 악마 군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우리가 끌고 싶은 추측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에 오셨을 때, 무덤에 사는 사람, 벌거벗은 사람, 때로는 광야로 쫓겨나는 사람, 제정신일 수 있는 사람이 집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소식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의 기적적인 만남. 하나는 폭풍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심 귀신 들린 자의 석방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이로와 출혈하는 여자에 대한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군중이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의 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크는 딸을 외동딸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12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생계를 의사들에게 썼지만,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뒤로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피의 분비물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습니까? 모두가 부인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 주변에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나를 만졌는데, 나는 그 힘이 나에게서 나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떨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왜 그를 만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즉시 치유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통치자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그리고 그가 집에 왔을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그리고 모두가 그녀를 위해 울고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녀의 정신이 돌아왔다.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그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부모들은 놀랐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누가복음 8장의 이 마지막 기적적인 만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 만남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누가 관련된 인물들을 묘사한 것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야이로는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회당의 통치자였습니다.

지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자와 대조되는데, 그녀는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나리오에서 그들 모두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군중, 아시다시피,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때때로 군중을 생각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호기심 많은 구경꾼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그들이 응원단원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가끔 그들이 누군가의 기적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군중, 군중, 군중, 군중, 군중이예요. 왜 가끔 그들이 그냥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주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지만 예수를 기적적으로 만난 이 두 인물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회당 통치자였습니다. 회당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예배 행사의 물리적 배열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저명한 인물이었고, 유대인 공동체에 따르면 유대인 공동체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와 다른 행사를 위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무릎을 꿇고 예수에게 12살 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살이라는 것은 사춘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에 아이를 결혼시키곤 했습니다. 저는 유아기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12살에 요셉과 결혼하도록 주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요셉은 그녀가 13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명한 인물인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는데, 딸은 아버지의 딸에 대한 꿈이 모두 위태로운 중요한 나이에 12살입니다. 딸이 결혼하고 저명한 인물이 적응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꿈은 딸에게 매우 훌륭한 남편을 찾을 가능성이 큼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꿈을 꾼다. 아버지의 꿈을 상상해 보라. 이 소녀에 대한 온갖 투사가 있고, 소녀는 병에 걸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야이로는 이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특정 기록에서 예수를 상대할 여인의 위험과 성적 반응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는 사실.

당신이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야이로의 딸이 사는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즉,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삶을 살았고, 그녀는 그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있는 여자는 12년 동안 생명이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 동안 많은 위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귀족의 딸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무도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보 또는 신성한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 있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은 이름 없는 여자가 기적적인 경험을 위해 예수께 올 것입니다. 레위기 법전에 언급된 출혈은 장애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더럽게 되고, 그가 만지는 사람도 더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히 믿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질병 때문에 부끄러움 속에서 살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루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 여인은 그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우리는 그녀가 모든 돈을 의사에게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고 이 출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썼던 한 여인에 대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녀는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그리거나 빠르게 관찰하기 전에, 야이로와 이 여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공통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누가는 그의 뛰어난 문학적 예술성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는 야이로가 쓰러졌고, 그 여인도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기, 아이, 12살을 안으실 것입니다.

그 여자는 비밀리에 만질 것이다. 불순함의 위험이 있었다. 그 여자가 예수를 만지면 예수는 더럽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이미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혔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의식적 불순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의식적 불순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왔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두려움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했고, 야이로의 집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기적적인 만남에서, 특히 야이로와 그의 딸, 그리고 혈루증이 있는 여자와 관련된 이 문제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고향 선언문에서 설명하신 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해방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오셨습니다.

그는 자유를 가져다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를 만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야이로의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여자와의 이 가로채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서사적 순서를 상기시켜 드릴까요?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에게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군중의 반응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사로와 요한의 경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가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군중은 바로 그런 식으로 우스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라면, 그들은 말할 거야, 응. 응, 그러니까 그는 자고 있는 거야. 그냥 놀리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선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에서,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쯤, 예수님은 한 장에서, 누가의 서술에 따르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성숙해질 것이다. 그는 기적적인 행위로 자신의 말을 확증했다. 그것으로 그는 폭풍을 가라앉히고 자연에 저항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수비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주고 데카폴리스에서 그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12년 동안 출혈을 하던 여자가 믿음의 손길을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이어서 예수께서 그에게서 힘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과 함께, 야이로의 딸, 많은 희망을 가진 아버지의 딸, 결혼 적령기의 딸, 예수께서 그녀의 건강에 대해 들으신 때와 예수께서 집에 도착하신 때 사이에 죽은 딸. 야이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죽음, 사탄, 죄를 다룹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가 선포하기 위해 온 자유를 그들에게 줍니다. 이 강의 시리즈를 우리와 함께 따라가면서 지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은 한 걸음 물러나서 스스로 시험을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의 데카폴리스의 두려운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출혈하는 여자가 의사에게 모든 재원을 다 써도 소용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딸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전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우는 데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희망과 기도는 여러분 이 이 학습 경험을 내면화하고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를 구현하여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와 권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르 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2, 예수와의 기적적 만남,  
루가복음 8:22-56입니다.